

월/요/광/장

강희숙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대운하 조기 착공 시도를 놓고 우리는 지금 어지러운 정도...

대운하 건설 역시 마땅히 과거하는 것이 옳을진대, 대통령은 만에 하나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요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대운하는 대운하로 풀자

다시 한 번 그 일이 할 수도 없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만일, 대운하 건설을 단지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운하 건설 역시 마땅히 과거하는 것이 옳을진대, 대통령은 만에 하나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요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대운하 건설 역시 마땅히 과거하는 것이 옳을진대, 대통령은 만에 하나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요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아당 역시 집권당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인 어깃장이 아니라, 대운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가장 객관적 이면서도 과학적인 검증에 우선순위를 두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어느 쪽이 되었든 틀림없이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일일 것이라는 의심을 이겨내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정한 근거와 명분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뚜렷한 이유...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교통신호 하나 안지키며 '문화수도'라니

광주시내 도로가 교통신호 위반 차량으로 '무법천지'가 돼 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광주시내에서 교통신호 등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 과속·난폭운전을 일삼는 차량 때문에 운전하기가 무섭다고 토로하고 있다.

광주시내의 교통 무법천지는 경찰의 소극적인 단속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광주지역 교통신호 위반 적발 건수는 2005년 4만7천여건, 2006년 3만7천여건, 지난해 4만8천여건이었다.

하지만, 무단단속기 적발을 제외한 현장단속 건수는 2005년 2천11건, 2006년 2천398건, 지난해 2천615건에 불과하다. 이는 차량등록대수가 큰 차이가 없는 대전과 울산의 15~3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광주가 1천166건으로 대전 741건, 울산 493건에 비해 훨씬 많았다. 현장 단속 소홀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양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질서 의식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광주 현실은 홍보와 계도만으로 교통신호와 주차 등 교통질서를 확립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찰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병행돼야 하는 것이다.

광주는 문화수도로 자부하고 있다. 오는 2012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해 국제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문화수도, 국제도시는 구호로만 남는 것이 아니다. 그에 걸맞은 법과 질서가 확립돼야 문화도시, 국제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찰의 단속을 타기 전에 시민들부터 자성해야 한다. 교통신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문화수도라 할 수 있겠는가. 경찰도 교통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통령까지 불신하는 한심한 기상예보

기상청의 부정확한 일기예보가 또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일기예보가 틀렸다고 기상예보의 개선을 촉구했다.

기상예보에 대한 대통령의 불신이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잘못된 일기예보를 꼬집었다. 대통령은 "슈퍼 컴퓨터가 도입된 이후 예측률이 더 나빠졌다"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유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일기예보의 정확도는 실망스런 수준이다. 약 기상 수치예보모델의 강수예측 정확도는 2006년 21%에 불과했다. 작년 8월 강수량 수치예보모델은 총 1천619mm이었지만 실제 강수량은 무려 1천791mm나 많은 3천410.1mm에 달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기예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슈퍼 컴퓨터 등 첨단 예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지만 자연현상을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상예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농사와 관광 등을 넘어 기상정보를 적극 활용한 '웨더 마케팅'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주말 예보가 빛나면 국민의 여가활동도 차질을 빚게 된다.

기상청은 할 말이 없게 됐다. 우리나라 일기예보의 정확도는 실망스런 수준이다. 약 기상 수치예보모델의 강수예측 정확도는 2006년 21%에 불과했다. 작년 8월 강수량 수치예보모델은 총 1천619mm이었지만 실제 강수량은 무려 1천791mm나 많은 3천410.1mm에 달했다.

기상청은 더 이상 장비와 인력 탓만 해서는 안 된다. 슈퍼 컴퓨터를 도입한 뒤 기상 예측률이 더 떨어졌다는 대통령의 지적을 깊이 새겨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번 기회에 기상 예측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기상 선진국으로 탈바꿈할 기를 잡아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김철



몇 년전 국선번호를 받았던 사건이 생긴다. 피고인은 여수에 있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여수로 근무하던 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그런 일로 이전에 처벌받은 전과도 있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학생이 어떻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국민의 교육열이 높아져 강하게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은 경영난 때문에 학생을 모집하기에 급급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교육문제를 학교와 학부모의 자율에만 맡긴 까닭에 그와 같은 현상이 생겨난 것 같다.

기고

전승현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국가 기간 교통망은 주요 도시, 비행장,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인적·물적 수송효율을 극대화 한다. 이는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기간이 된다.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국가 기간 교통망은 주요 도시, 비행장,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인적·물적 수송효율을 극대화 한다. 이는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기간이 된다.

호남고속철과 무안공항 연결돼야

야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이 후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선정돼 2010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이 후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선정돼 2010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이 후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선정돼 2010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이 후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선정돼 2010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취업난 대졸자에 이주여성 한국 적응 교육 맡기자

지난 겨울방학 기간중 농촌에서 자원봉사했다. 필자가 속한 팀은 무안으로 가서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우리말 교육을 했다. 농촌에는 이미 필리핀·캄보디아 등에서 시집 온 국제결혼 여성이 상당히 많았다.

우선 기초단체(여유가 있다면 단위)에 종합 교육장을 마련하고 1주일에 3~4일 1년 또는 2년간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주여성들의 한국 적응은 훨씬 빨라질 것이다.

현재 대체 취업난이 심각하다. 필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대졸자중 영어권, 동남아권, 동북아권으로 나눠 회화가 가능한 학생들을 선발, 그들에게 외국어 여성 농민들의 한글·문화·생활 등 교육을 맡길 것을 제안한다.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졸업자들은 이 중앙교육원에서 기본 교육을 수료한 뒤 농촌으로 파견되면 좋을 듯하다.

중학생 수준의 대학생이 술한 현실

'양, 가'이었다. 도저히 대학교육에 대한 수확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좌시하지만 말고 대학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만 대학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사건을 변론하면서 필자는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 피고인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지능임에도 우리는 그를 대학생으로 만들었고 그의 부모는 잠시나마 대학생 자녀를 둔 즐거움을 누렸다.

모든 국민이 대학을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직업이 대학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국민이 의사가 될 수 없고 판사가 될 수 없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그러나 이것은 대학이 필요 이상으로 많고 학생이 부족하여 대학은 학생의 수확능력에 상관없이 모두 입학시켜 학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좌시하지만 말고 대학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만 대학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자전거 운전면허증 없으면 안돼

최근 자전거를 사러 갔다. 판매점 주인이 전자자전거를 구입해 편하게 이용하라고 권했다. 필자가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 주인은 이런 자전거는 필요없으니 염려말라고 설명했다.

전자자전거 운전면허증 없으면 안돼. 전자자전거는 전자자전거와 일종의 자전거라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물론 전자자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관련기관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적극 홍보해 줘야 한다.

▲최인준·광주시 북구 운정동

▲강근우·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無等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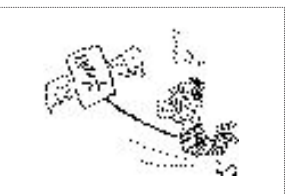
지난 1944년 브레튼우즈체제 이후 미국의 달러화는 영국의 파운드화를 끌어내리며 세계 중심통화의 자리에 올랐다. 그후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 즉 기축통화로서 지난해 중반까지 60년 이상 세계경제에 위세를 과시했다.

달러화이고 나머지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다.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중남부 짐바브웨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하늘까지 닿고 있다.

지난 90년대 초 소련 붕괴 직후 경제난을 겪을 당시 러시아의 루블화를 달러당 5천800까지 끌어내리며 루블화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루블화의 가치를 1천배 절상하는 화폐개혁을 통해 사태를 수습했다.

달러화이고 나머지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다.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중남부 짐바브웨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하늘까지 닿고 있다. 자국통화인 짐바브웨달러(Z\$)는 미국 달러당 5천500만Z\$ 수준이다. 실패율은 80%를 웃돌고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만%가 넘게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이 사람잡게 생겼다.

짐바브웨와 한국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달러의 위상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런 같은 나라는 석유를 파는 대금으로 달러화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과거 달러에 굴욕을 당했던 러시아도 경제개혁을 작성할 때 달러를 표시하지 말도록 했다.

물가를 잡는다며 식빵 1개 가격을 500 Z\$에 묶어 뒀지만 이보다 3만배가 비싼 1천500만Z\$에 팔리고 있다. 교사월급이 5억Z\$고 계란 한판이 1억8천만 Z\$이며 5천Z\$짜리 지폐가 길바닥에 떨어지면 도둑이 사람이 없나니 같은 나라는 석유를 파는 대금으로 달러화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환보유액중 달러의 비중을 사상 최저인 63%로 낮췄고 한국의 외환보유액도 65% 가량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환보유액중 달러의 비중을 사상 최저인 63%로 낮췄고 한국의 외환보유액도 65% 가량만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